

안전사고 미리 예방하세요

I. 머리말

과거 어린이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전염성 질환 및 영양장애 등이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최근에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에 산업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우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이 연간 15,00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체육 활동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휴식시간, 교과수업, 과외활동, 청소 등이며,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주변에서도 교통사고, 화재, 떨어짐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질병이나 불구,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의 매일 언론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교통사고, 화재사고, 가정내 사고 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



이 주 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학 박사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와 같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여 어떤 원인이 사고를 일어나게 만들었는가를 알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II. 안전사고 예방방법

1. 학교에서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과 활동들이 있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과학실험실에서의 실험활동, 실업시간의 조리과 바느질 활동, 미술시간의 공작활동, 소풍이나 여행 활동 시간 등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과 경험을 주는 반면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평소애 유의사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이 연간 15,000건에 이른다.

항을 머리에 넣어두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다.

① 실험시간중 지켜야 할 점

-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화학약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은 다음 봉산수로 씻는다.

- 유독성 액체시료를 피펫으로 빨아서는 안된다.

-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는 장갑을 끼거나 헝겊으로 싸서 손을 보호한다.

② 미술시간중 지켜야 할 점

- 조각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도구는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힌다.

- 칼이나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기구를 조심성있게 다룬다.

③ 가정시간중 지켜야 할 점

- 뜨거운 음식이나 재료를 운반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스의 밸브 조작은 학생이 하지 않는다.

- 수업 후 바늘 등 위험물질이 없는가 확인한다.

-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자기류 조각이 바닥에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④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점

- 적어도 식사 2시간 후에 운동을 한다.

- 숨쉬기가 힘들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는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운동 전에는 약간의 준비운동과 운동 후에는 정리운동을 한다.

2. 가정에서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승강기나 계단에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고, 집안에서는 화재나 전기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물적 요인은 전기용품, 가스, 칼날, 가연성 액체, 중독성 물질, 완구 등이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

- 성냥불은 반드시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버린다.

- 전기를 이용하는 기구들은 올바른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사용한다.

- 가스나 휘발성 기름을 이용할 때에는 더욱 조심한다.

- 신문지, 형질조각, 촛불 등은 불 옆에 두지 않는다.

②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

- 먼저 코드를 기구에 끼운 다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다.

- 물기가 있거나 젖은 손으로 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코드를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아 뺀다.

- 전기 기구를 물에 넣고 씻지 않도록 한다.

- 플러그 또는 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잘 살핀다.

- 너무 많은 전기 기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③ 계단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

- 뛰지말고 계단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 몇 칸씩 건너뛰게 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계단을 하나 하나씩 순서대로 밟는다.

- 계단 난간 사이에서 절대 놀지 않는다.

④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

- 승강기 앞이나 안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승강기에 탈 수 있는 정원을 반드시 지킨다.

- 비상 정지 버튼은 필요할 때에만 만져야 한다.

3. 거리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교시나 소풍, 견학 등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될 때 걷기도 하고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하며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이때 학생들은 교통 안전규칙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① 길을 건널 때 지켜야 할 점

- 길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 길을 건너기 전에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길을 건너지 않는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다니도록 한다.

- 도로에서는 반드시 좌측통행을 한다.

② 골목길을 통행할 때 지켜야 할 점

- 봄비는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접근 신호를 보내면 피해 준다.

- 길을 걸을 때는 자동차에 관심두고 조심한다.

- 골목길에서 어깨동무를 한채 걸어서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③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지켜야 할 점

- 정지하게 될 교통편에서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 차를 기다린다.

-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 승객이 먼저 내린후에 차례로 탄다.



- 문 가까이 서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III. 맺음말

학생들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불안전 행동이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안전은 바로 나의 생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생활이 습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이 생활화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안전은 유지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주변의 위험한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통로, 운동장 상태, 밝기, 시설설비의 파손 등 환경측면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복도에 불이 있어 미끄러지거나 복도 바닥에 못이 나와 있거나 유리창이 파손되어

신체에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생명유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이 활동하는데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없다면, 마음놓고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교생활이나 가정에서 안전사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특히 학생시절은 주변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조그마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질병이나 불구,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卞